

# 현직 프리미엄이나 민주당 바람이나

## ■장성군수 후보

### 6·13 격전지를 가다

#### ■장성군수

장성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현역 군수인 유두석 후보와 민주당 윤시석 후보 간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도 장성군민들은 '현 군수의 우세가 계속되느냐', '여당 후보의 역전이나의 갈림길에서 뚜렷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다. 지난 9일 장성역에서 만난 이모(65)씨는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로운 후보가 군수가 되어야 한다"며 "그래야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에 매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치인이 선거전에 오면 오히려 피로감을 느낀다. 지금은 농번기인데 유세전에 동원된 사람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며 "중앙당 차원의 지원은 장성

민주 윤시석 vs 무소속 유두석 접전 고려시멘트 이전·철로 지중화 쟁점 유권자 적어 1만6000표면 승리 가능

에서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50대 택시기사는 "도지사와 지역구 의원, 국무총리 나아가 대통령까지 민주당 소속인데 어느 후보를 찍어야 장성 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며 "5-6개월 전만해도 문재인 대통령을 데려와도 현역 군수와는 선거가 안 된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들어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군 인구는 4만6000명에 유권자는 3만4000여명이다. 장성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과열되면서

투표율이 85%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전선거 투표율도 43.7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를 기준으로 1만6000표 정도면 승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은 김홍식 군수가 3선 연임에 성공한 뒤 유두석 군수가 새로 뽑혔으나 2년 후 중도낙마하고 부인인 이정씨가 재보궐선거에서 승리, 군수가 됐다. 하지만,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김양수 군수로 바뀌었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두석 군수가 다시 선출되는 등 군수 선거를 놓고 복잡한 상황이 연출되는 지역이었다. 특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무소속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기도 하다.

선거판세를 놓고는 양 후보의 주장이 갈린다. 우선, 윤 후보 측은 "선거 초반 유두석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격차가 많이 줄어 박빙일세다"고 주장했다. 선거 초반 12-13%포인트 격차로 뒤지다가 지난주 중 7%포인트까지 격차를 좁혀, 이 추세로 볼 때 역전 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윤 후보 측 전망이다.

반면, 유 후보 측은 선거 초반보다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유 후보 측은 "한 여론조사 결과, 당보다는 인물 보고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80%이상이었다"며 "이런 지역적 분위기로 인물론 위주 선거운동이 효과를 보면서 지지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추세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민주당 지지층에 60대 미만의 청장년층을 지지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 도당과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실제로 매일 중앙당에서 유명 정치인들이 내려와 지지유세를 해주고 있다. 그리고 외지에 있는 장성



윤시석 56·민정당인



유두석 68·무소속장성군수

재산	5억1285만원	22억4138만원
병역	병역필	병역필
세금	3487만원	6627만원
전과	전과없음	전과 1건
학력	전남대 행정대학원 수료	경원대학교 공학박사
주요 공약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용돈 해결 ·청년수당 월 20만원 지급 ·지역화폐 100억원 발행 유통 ·축령산 세계힐링관광엑스포 개최 ·수도권 기차사 '장성학숙' 건립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 추진 ·국립심혈관센터 완공 ·동해고속 100원 택시 확대 운영 ·고려시멘트 공장에 주택단지 조성 ·KTX장성역 정착 실현

출신 청장년층을 공략, 고향의 부모형제들에게 민주당 후보의 지지를 독려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반면, 유 후보 측은 현역의 프리미엄을 활용, 오랫동안 관리해온 조직을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직적 지원에 직접 대응해 대규모 유세전을 펼치기보다는 두세 사람만 있어도 찾아가서 표를 호소하는 '찾아가는 유세'를 하고 있다.

선거전략과 관련, 윤 후보는 지역을 한번도 떠나지 않은 토종후보인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역에서 자라고 지역을 지켜온 후보, 군의원 1번에 도의원 3선의 경험으로 지역의 모든 것을 아는 후보라는 주장이다. 유 후보의 '강한 중앙인맥' 주장에는 지역구 의원,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민주당이어서 집권당의 강점이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 후보 측은 여당 후보가 강점이라는 주장은 옛날 생각이라고 주장한다. 유 후보는 "지금은 국가사업이 투명해 돼서 무소속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유지할 수 있다"며 "장성군은 국무총리도 가져본 일

이 있다. 그런데 장성에 특별한 발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전남도지사와 국회의원이 기초단체장이 무소속이라고 무시하겠느냐"며 "군수는 행정가를 뽑는 것이지만 정치인을 뽑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장성 지역 군수선거에서 최대 쟁점은 고려시멘트 이전과 장성역사 인근 철로 지중화 문제다.

윤 후보는 여당 후보가 군수가 돼야 숙원사업인 두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후보는 고려시멘트 이전에 대해서 공직에 있을 때 분당을 개발한 경험을 살려 정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철로 지중화에 대해서는 "3600억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의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일지가 중요하고 또 우선 경제성이 있느냐도 중요한 문제다"며 "철로가 장애요인인 것은 인정하나 신도심을 조성하는 게 더 경제적이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민주당 윤시석 후보



무소속 유두석 후보

### 6·13 선거현장

#### 광주 구청장 후보

#### 김성환 "투표율 높은 이유는 동구 발전 바라기 때문"



김성환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가 10일 "동구가 광주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유는 동구의 중단 없는 발전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남은 본선 거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8일과 9일 지난 이틀간 사전선거동안 광주 동구 투표율이 28.92%를 보였다"며 "중단없는

동구 발전을 바라는 동구민들의 열망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저도 지난 8일 동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했고 4번을 외치며 유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모습도 잘 볼 수 있었다"며 "선거운동 남은 3일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동구민들의 민심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임우진 "이번이 마지막, 다시는 서구청장 출마 않겠다"



임우진 무소속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10일 "이번 광주 서구청장 선거를 마지막으로 다시는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당선 땐 4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며 월급 전액을 장학금과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 다시 서구청장으로 일하게 되면, 제 인생의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고 더 이상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는 "민선 7기 4년 임기동안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 붓겠다"면서 "그 동안 추진해 온 일을 모두 완벽하게 마무리 짓고 장기적인 서구발전 계획을 잘 수립해 민선 8기 서구청장에게 넘겨 주겠다"고 말했다.

#### 서대석 "광천동~상무 구간 용복합 의료관광벨트 구축"



서대석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청장 후보는 10일 "광천동 신세계 백화점에서 상무신도심 구간에 각종 전문분야 의료기관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는 메디컬 거리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며 "최근 각광받기 시작하고 있는 관광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산업을 융복합화한 의료관광벨

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는 "치과, 한방병원, 고관절, 난임 등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분야로 특화시킨 의료관광벨트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내외 저명 의료관광 MICE행사 개최 등 상무신도심 의료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문인 "민생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 삼을 것"



문인 더불어민주당 북구청장 후보는 10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2011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1.0%에 그쳤다"면서 "북구청장이 되면 민생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해 기준 국내 자영업자 비중은 전

체 취업자의 21.3%로,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적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민생경제의 큰 축인 자영업업을 이대로 방치하면 자칫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경험을 살려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협조체제를 마련해 자영업 살리기에 혼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삼호 "문재인정부 더욱 공고해 지도록 힘 모아 달라"



김삼호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후보는 10일 '6·10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5월 광주를 제물삼아 6월 항쟁으로 꽃 피웠다"면서 "촛불정국으로 들어선 민주정부 3기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김 후보는 "6월 항쟁이 있었던 1987년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의미있는 해일 뿐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지선언하다 구속되고 평민당에 가입하며 사실상 정치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한 해여서 개인적으로도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시키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투표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www.koreanair.com

2019년 6월  
세계 하늘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75 IATA ANNUAL GENERAL MEETING 2019 SEUL 2-4 JUNE 2019

75차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연차총회 일자: 2019년 6월 2일(월)~4일(화)  
세계 290여 개 항공사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세계 항공 발전을 논의하는 IATA 연차총회를 대한항공이 정성으로 준비해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